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록화 사업 현황과 지속가능성 검토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홍명화(Myunghwa Hong)¹, 이해은(Hye-Eun Lee)²

E-mail: hong356@sookmyung.ac.kr, helee@sookmyung.ac.kr



¹제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²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논문접수 2023.04.20
최초심사 2023.05.01
게재확정 2023.05.23

ORCID

Myunghwa Hong
https://orcid.org/0000-0002-4309-9448

Hye-Eun Lee
https://orcid.org/0000-0002-5452-9044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 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and operational status of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aims to propose considerat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With the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city or culture departments of local governments promoted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as part of their urban and cultural policies. Each local government enacted landscape ordinances and the ordinanc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and promo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ased on this, local governments performed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 document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ordinance enactment, budget, acquisi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cords for a total of 55 cases.

The study has found that legislation is an essential factor in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shoul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ograms, ensur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reate digital archives to secure the budget continuously.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evaluates the overall regional documentation cases of local government city or culture departments as part of the city or culture policy rather than a specific region or case and presents more objective and general considerations for sustainability

Keywords: 지역 기록화, 도시 기록화,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 기록화
Regional documentation, Urban documentation,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Urban regeneration document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였고(국무조정실, 2021)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28.)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균질화·획일화된 도시에서 탈피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고 고유 특성과 문화가 있는 개성 있는 도시의 조성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매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임무와 과제가 되었다(계기석, 천현숙, 2001).

지역정체성 또는 지역성(Locality)이란 지역민들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또는 그 밖의 다른 측면에서 일체감을 가지는 지리적인 지역 혹은 지역적 특징이며, 지역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공동체(Community), 경제(Economics), 역사적 발전(Historical Development), 인식(Perceptions), 인구(Population), 사회(Social Aspects), 문화(Culture), 지리(Geography), 풍경(Landscape), 정치(Politics), 종교(Religion), 기술(Technology) 등이 있다(Cox, 2001). 따라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 특성과 문화가 있는 도시의 조성을 위해 지역의 공간, 공동체와 지역민의 삶, 역사와 문화 등 지역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수집·생산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지역의 집단적 기억이 담긴 ‘지역 기록물’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설문원, 2012).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활동과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을 ‘기록화(documenting)’라고 하며(설문원, 2021),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지역에 관한 기록을 수집 또는 생산하는 활동을 ‘지역 기록화’라고 정의한다.

지역 기록화는 기록의 수집·보존·활용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기록물관리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또는 문화 관계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19년 신설된 「공공기록물법」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으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자체 기록관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 및 민간기록물 수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사업은 해당 지역과 관련한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하여 민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제주·경남·충남·대구·대전·전남·세종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조). 한편 지자체 도시 또는 문화 관계부서에서도 다양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국책사업인 도시 재생사업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등이 있다.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며(경관법 제2조), ‘경관 기록화’는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를 생산·확보하고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9조,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32조, 계룡시 경관 조례 제9조, 김천시 경관 조례 제10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는 시·군·구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소산인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며,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성남시·양산시·순천시·여수시·의정부시·김포시·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자체 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사업이 지역의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지자체의 도시 또는 문화 관계 부서에서 추진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주요 목적은 도시경관, 도시정비·재생 등 도시정책과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록의 수집·보존·활용을 핵심 역할과 임무로 삼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 이외, 지자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기록화를 수행하는 주요한 주체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의 도시 또는 문화 관계부서가 도시·문화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 기록화 사업이 도시정책의 기초 자원이자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또는 문화 관계부서에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기록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제도를 파악하고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지역 기록화 사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지자체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지역 기록화 사업의 현황은 제도적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추진 근거 또는 배경이 되는 법령 및 정책을 살펴보았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기록화’, ‘아카이브’로 검색한 결과 지자체별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파악하였고, 각 조례에 지역 기록화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선정하였다. 지자체별 「경관 조례」 133건,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10건을 대상으로 조례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주요 조항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조례가 지역 기록화에 대해 어떤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자체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9건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 하동군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는 도시재생사업 전후 지역 기록화, 지역조사 및 자료수집, 구술 채록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기록화 활동이다(구미시, 2022; 익산시, 2021a; 포항시, 2020a). 도시재생사업 기록화를 조문으로 포함한 조례는 전체 239건 중 3건으로 매우 적어,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록화 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총 55개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경관 조례」에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명시한 133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선정 방법은 선행연구(인천광역시, 2018; 하승용, 2019)를 통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6개 지자체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확인하였다. 지자체는 사업의 시행 또는 완료, 서비스 개시 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므로 포털에서 「경관 조례」에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명시한 133개 지자체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지자체명 + 도시경관 기록화’) 관련 보도자료·기사를 검색하여 전북 전주시, 광주광역시, 강원 평창군, 전남 화순군 4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총 9개 지자체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의 조사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서 검색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서, 구축된 도시경관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사업별 기간, 예산, 기록의 수집·관리·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하였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10개 지자체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선정 방법은 포털에서 지자체별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 관련 보도자료·기사 검색 및 조례 제정연도를 전후로 조례 관리책임부서의 예산서에서 관련 사업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총 8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의 세부 내용(기간, 예산, 수집·관리·활용 방법)은 예산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구축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서 ‘도시재생 기록화’, ‘도시재생 아카이브’로 검색한 후,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2016-2023년까지 3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의 세부 내용(기간, 예산, 수집·관리·활용방법) 역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통해 조사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법령·정책 및 운영 현황 조사를 토대로 비교·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형별 지역 기록화 사업의 현황을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지역 기록화 사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지역 기록화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와 지역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지역 기록화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록물관리기관 및 자료수집·연구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련 법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정은, 김유경, 김건(2020)은 「공공기록물법」의 민간기록물 관련 조항 신설 등 지역의 다양한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배경으로 공공기록물법 안에서 민간기록물 관련 조항의 제·개정 흐름 및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건, 「근현대기록관(마을기록문화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3건,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3건이 제정되어 있다. 이 10건을 대상으로 조례의 제정 배경과 주요 조항을 소개·분석하여, 향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이 민간기록물 조례 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지훈, 김익한(2023)은 국내 민간기록물 수집기관인 기록물관리기관의 「공공기록물법」 및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의 관리 및 운영 규정」, 한국국학진흥원의 민간기록문화법률안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제들은 수집대상이 중첩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기반 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 지역기록화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 도시, 마을을 대상으로 삼아 기록화 사례 또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승용(2019)은 6대 특·광역시에서 진행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비교·분석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경관기록화의 체계와 기록 대상의 선정, 촬영기법 등 기록 방법을 제시하였다. 유해연, 양지원(2021)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금하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기록단 양성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해당 사례의 의미와 한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외 서울 성미산 마을(최윤진, 2011), 부산 산복도로(김화경, 2012), 부산 동해남부선(설문원, 김정현, 2013), 광주 양림동(여진원, 장우권,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이경래, 2015), 대전 원도심(손원태, 2016), 목포 목원동(오진영, 2016), 대구 약전골목(엄소영 외, 2017), 강원도(유혜림, 2018), 서울 성북구(이희숙, 2019), 성남시(엄수용, 2020), 강원도 폐광지역(임세진, 2020), 증평(이정연, 2021)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기록화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 기록화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는 기록물관리기관이나 자료수집·연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법령과 관련하여 논의되었고, 지역 기록화 개별 사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제정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록화를 수행할 때 근거 또는 배경이 되는 법령과 정책이 있는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지자체는 지역을 운영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의 특성 있는 자원과 자료에 관심을 갖고 지역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지자체는 도시를 계획·재생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행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살펴보았다.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지역 기록화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며, 지역 기록화 사업 관련 제도와 운영 현황을 연계하여 검토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록화 사업 관련 법령 현황

2.1 경관 조례

2.1.1 조례의 제정 배경

1960년대 이래 공급 위주의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한 지역성·전통성 상실 등 경관의 손실 발생, 획일적이고 비개성적인 국토 경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면서(장순재, 2007)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경관법」 제16조제1항은 경관사업의 대상으로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지자체별 경관 조례*는 경관사업의 대상으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 2023년 현재 전체 205개 경관 조례 중 133개 조례(65%)에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도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등이었다.

가장 먼저 도시경관 기록화를 명시한 것은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이다. 인천광역시는 2003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도시경관의 기록’ 조항을 포함하였다. 2000년 제정된 「강원도 경관 형성 조례」는 당시 조문에 도시경관 기록화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2014년 개정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다. 2001년 제정된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평창군 경관 조례는 2014-2015, 2019년에 경관 기록화 내용을 신설하였고, 2002년 제정된 강릉시, 고성군 경관 조례는 각각 2015년, 2016년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였다.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지자체별로 경관 조례의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표 1〉 경관 조례 제정 현황

제정연도	광역지자체 (14)	기초지자체 (119)
2000	강원도	-
2001	-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속초시
2002	-	강원도 고성군· 강릉시
2003	인천광역시	-
2004	-	강원도 횡성군
2005	광주광역시	강원도 양양군
2006	-	전남 목포시, 전남 무안군
2007	-	강원도 원주시, 전남 영광군· 영암군· 장흥군
2008	대전, 서울, 울산, 대구	울산 남구, 경기 안성시· 안산시· 의왕시· 과천시· 시흥시· 파주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2009	전북, 경기도, 충북, 경북, 충남	경기 수원시· 양주시· 김포시, 충북 진천군, 충남 보령시, 경남 거제시
2010	-	경기 용인시, 경기 연천군· 평택시· 부천시, 전남 여주시, 경남 사천시
2011	-	경기 이천시· 광명시· 양평군, 충남 논산시· 아산시, 경남 밀양시· 진주시
2012	-	경기 성남시· 오산시, 충남 태안군· 당진시, 경북 영주시
2013	-	경기 여주시, 충남 부여군, 전남 강진군
2014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경남 김해시
2015	-	부산 북구· 서구· 중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 울산 울주군· 북구, 경기 군포시· 가평군· 동두천시· 하남시, 충북 단양군, 충남 예산군· 서천군· 서산시, 전북 정읍시· 부안군, 경북 포항시· 영천시· 상주시
2016	-	부산 강서구, 인천 서구, 충남 계룡시· 공주시, 경북 김천시

* 조례명이 다소 다른 것은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시흥시 경관 디자인 조례」, 「전남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이다.

2017	-	경기 안양시· 구리시, 충남 청양군, 전북 무주군, 경북 칠곡군
2018	-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임실군· 고창군· 곡성군, 경남 양산시
2019	세종특별자치시	대구 달성군, 서울 강동구, 경기 포천시· 의정부시, 전북 진안군· 순창군· 전주시
2020	-	전북 장수군
2021	-	서울 은평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경북 성주군
2020	-	서울 영등포구, 대구 달서구, 경기 광주시
2022	-	서울 중랑구, 충남 금산군, 경북 경산시

2.1.2 조례의 주요 조항과 내용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경관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었으며,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를 생산·확보하고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9조제2항,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32조제1항, 계룡시 경관 조례 제9조제2항, 김천시 경관 조례 제10조제2항). 기록화의 대상인 ‘경관’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경관법 제2조). 경관 조례는 ‘경관사업의 대상’ 조항에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집, 관리,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및 충남 계룡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조례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매 5년 마다 실시하며,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천광역시 조례는 ‘도시경관의 기록(제32조)’ 조항을 별도로 두고 「항만법」 등에 따른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2.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2.2.1 조례의 제정 배경

도시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는 2019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총 10건이 제정되어 있었다. 순천시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평택시는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명으로 제정하였다.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문화예술과(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과), 시립박물관(박물관사업소), 총무과이다.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상위법으로 하였다.

〈표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현황

제정연도	지자체
2019	성남시, 양산시
2020	순천시, 여주시, 의정부, 평택시
2021	김포시, 연천군,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2	광양시

2.2.2 조례의 주요 조항과 내용

지자체별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10건은 유사한 조항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조례는 조사대상, 수집방법, 매개자, 물리적 보존, 공개, 대여, 활용 등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전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관 조례와 비교하여 구체적이다. 공통적인 조항은 ‘목적’, ‘정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전문인력(전담인력 전문조사단) 배치(운영·위탁)’,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공개’, ‘대여’, ‘활용’이다.

‘조사대상’, ‘기록물의 생산’, ‘도시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위원회 및 심의’ 조항은 10건 중 9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실물자료의 수집’ 조항은 8건, ‘시민활동가’, ‘보관장소’는 7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시·군·구의 도시역사문화(자원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성남시, 양산시, 순천시, 여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천군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통해 연천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연천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 광양시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통해 광양시민의 문화적 경제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평택시는 주한미군 역사를 조사·수집·구축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공유하며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②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무형 소산, ③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④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⑤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순천시 조례는 조사대상에 보존 가치가 있는 각종 재해·재난, 광양시는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였다. 여주시의 경우 향토지(읍·면·동지) 발간 후 20년이 지나 재조사가 필요한 읍·면·동지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조례는 대상 지역의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시민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자료 수집·조사 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지역 내 관계망을 갖춘 매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자체는 조사대상에 대한 결과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생산·수집한 기록물과 자료의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는 적절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하며 성남시, 양산시, 평택시, 여주시 조례는 보관 장소를 시 공립박물관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정하였다. 또한 이 조례는 ‘공개’, ‘대여’, ‘활용’ 조항을 두었다. 특히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에 대한 목적과 용도를 ①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 활용, ② 지역공동체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③ 도시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학습·전시·연구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과밀화 및 노후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지방 소멸 등 도시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기 위한 국가적 도시계획 사업으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다.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도시재생법 제2조), 기존 물리적 정비 위주로 진행되던 정비사업과는 달리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추구한다(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지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서 지역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많은 도시에서는 원도심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사전작업으로서 대상지의 역사문화자원 조사, 기록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체 239건 중 3건이었다. 이 중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년 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년 제정),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년 제정)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을 포함하였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및 전후 지역, 주민에 대한 기록화, 대상지 조사, 역사문화 자원 및 주민 소장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기록화 활동이다(구미시, 2022; 익산시, 2021a; 포항시, 2020a). 도시재생사업은 대상지를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과거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지역의 가치와 역량을 재발견·활용하여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도시정책이다. 도시 정비·재생 시 지역의 역사·문화적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자원을 계승하거나 재발견하고, 주민들이 공간에 대한 역사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지역 기록화가 진행된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록화 사업 운영 현황

3.1 도시경관 기록화

2023년 기준 경관 조례에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이 명시된 133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에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이 수행되었다. 14개 광역지자체 중 6곳(43%)에서, 119개 기초지자체 중 3곳(3%, 전북 전주시, 강원 평창군, 전남 화순군)에서 수행되었다. 부산시의 경우 2008년 시책 사업으로 경관 기록화를 수행하였는데, 경관 조례(2014년 제정)에 근거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며 2008년 이후 경관 기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조사의 결과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주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실시되었다. 기초지자체는 119개 경관 조례에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명시했으나 3개 지자체만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여, 조례 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시경관 기록화는 1995년 서울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처음 수행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경관 기록화는 5차 사업(2014년)부터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를 근거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사업은 5년 주기로 2019년 6차 사업까지 24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지자체별 경관 조례 제정 및 경관 기록화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2008년 인천, 2011년 대전, 2013년 대구, 2014년 울산, 2019년 광주 등에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2차 사업 이상 실시한 지자체는 서울 및 인천, 대전, 울산으로 전체 중 4곳(44%)이다. 광역지자체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고 지방비가 투입되어 비교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수행되었다. 사업비는 가장 최근 실시된 사업 차수를 기준으로 최소 63백만원(대구) - 326백만원(서울) 범위이며, 평균 207백만원이다. 사업은 지자체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등)가 주관하고 대학·산학협력단·연구소 등에서 수행하였다.

〈표 3〉 지자체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현황

연번	지자체	기간	예산 (백만원)	수집			관리				활용		
				기획연구	조사수집	경관촬영	관리주체	분류코드	파일관리	관다스넵	출판물	전시회	DA
1	서울	1995~(6차)	326	○	-	○	서울연구원	○	○	-	○	-	○
2	인천	2008~(2차)	278	○	○	○	사업부서	○	-	○	○	○	○
3	대전	2011~(2차)	131	○	○	○	"	○	-	○	○	-	○
4	대구	2013~(1차)	63	○	○	○	"	○	-	○	○	-	○
5	울산	2014~(2차)	300	○	○	○	"	○	-	○	○	○	○
6	전주	2015~(1차)	76	○	○	○	"	○	○	-	○	○	-
7	광주	2019~(1차)	200	○	○	○	"	○	-	○	○	-	-
8	평창	2020~(1차)	290	○	○	○	"	○	-	○	○	-	○
9	화순	2022~(1차)	200	○	-	○	"	○	○	-	○	-	-

(출처 : ①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 서울시 2014-2019, 대전시 2021, 울산시 2019, 전주시 2015, 광주시 2019, 평창군 2020, 화순군 2021, ② 기획보고서 : 인천시 2018, ③ 예산서 : 대구시 2013-2014, ④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별 구축된 웹사이트)

도시경관 기록화의 수집 활동으로 기획연구와 경관 촬영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졌고 옛 사진기록 수집이나 기록 수집공모전 등 조사·수집활동도 7건(78%) 이루어졌다. 경관 기록화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 경관 조례는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명시할 뿐 기록화의 대상과 절차, 관리·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자체들은 사업 진행 시 기획연구를 통해 기록화 방법 및 관리·활용 방안 등에 계획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기록대상은 각 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자연경관(지형, 산림, 하천, 해변 등), 산림경관(식생현황, 보안림 등), 농산어촌경관(경작지, 염전 등), 시가지경관(주요 주거, 상업, 공업경관, 상징가로 등), 도시기반시설경관(도로, 철도 등), 역사문화경관(문화재, 근대 건축물 등) 등이 포함된다(경관계획수립지침, 2018). 기록 대상에는 경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개발지, 재개발, 재건축 경관도 포함된다. 또한 기록대상 선정 활동에는 선정된 기록 대상을 촬영하기 위한 최적의 기록기준점(소망점)을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서울시(2019)는 5차 사업부터 기록대상에 '표준경관기록'을 포함하였는데, 이것은 시민 설문 조사로 선정한 대표 장소, 자치구 대표 경관지역, 1-4차 사업의 반복적 대상지 등 113개소 경관이다. 도시경관의 기록방법은 모두 경관에 대한 사진 촬영을 중심으로 하며, 거리별(근경·중경·원경), 계절별, 시간별(주·야간) 촬영이 이루어졌다. 계절별 촬영이 실시되므로 사업기간은 13개월(전주)-20개월(인천, 평창, 화순)까지 분포하였다. 전체 중 7건은 기록 조사·수집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대전, 전주, 광주, 평창은 과거 기록을 조사·수집하였고, 인천, 대구, 울산은 시민 대상 기록 수집공모전을 진행하였다.

도시경관 기록물의 관리 활동으로 모든 사업은 산출된 사진기록에 분류코드를 부여하였다. 서울시(2019)는 사업회차, 구, 대상지, 주제, 방향, 표준경관으로 코드를 부여하였고, 인천시(2018)는 사업회차, 군·구, 경관 유형, 기록대상 고유번호, 촬영지점 고유번호로 부여하였다. 분류코드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도시경관 기록물은 원본파일 등 기초데이터로만 납품된 경우 3건(33%)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6건(67%)으로 구분된다. 전주시와 화순시는 경관사진·영상 원본파일과 파일목록 등을 휴대용 저장매체(외장하드, DVD 등)로만 납품받았고 이후 기록물의 관리 및 서비스 활동이 파악되지 않는다.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평창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사진기록물을 연구기관(서울연구원)에서 영구보관·관리하며(서울시, 2014) 현재 서울연구원의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사진기록을 생산하는 만큼 모두 사진집(화보집)을 발간하였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6건(67%), 전시회 개최 3건(33%)이 이루어졌다. 인천시, 대구시, 울산시, 평창군은 '인천도시경관 아카이브',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평창군 도시경관 기록시스템'을 통해 경관사진에 대한 검색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내 '사진으로 본 서울'을 통해 총 6차 사업의 결과물인 약 36,000여 장의 사진을 서비스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정보' 내 '도시경관사진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도시경관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경관기록의 웹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의 특징은 공간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2019)와 인천시(2018)는 경관기록화의 방향으로 연속성, 객관성, 다양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충실히 기록하기 위함이다. 경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치에서 연속적인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관기록화 사업은 모두 일종의 '촬영기록표'를 작성하고 있다. 촬영일시, 촬영대상, 촬영위치(위경도 및 GPS 좌표), 촬영 장비 및 제원 등 정보를 상세히 작성하여 추후 기록화 사업 시 동일 위치에서 동일 대상이 연속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록대상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조망점과 각도로 촬영하였다. 촬영자는 대상을 촬영할 때 예술사진이 아닌 아카이브적 사진이라는 것을 염두 하고 대상을 아름답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왜곡 없이 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짙은 그림자, 해질 무렵, 전면의 나뭇가지와 꽃 등 주관적인 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배제된다. 기록대상을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상을 거리별, 계절별, 시간별로 촬영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3.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10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80%)에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지자체 문화예술과(문화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3곳, 박물관사업소(시립박물관) 2곳, 총무과, 한미국제교류과, 김포문화재단에서 담당하였다. 조례 제정 전후로 기록화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8곳 모두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예산 편성이 계속 이루어졌다. 사업비는 연평균 최소 23(대덕구)-최대 285백만원(성남시)이었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수집 활동은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사 자료에 대한 조사 및 공개 수집 8건(100%), 자연·유적·건축물·공간 등 경관촬영 4건(50%), 구술채록 3건(38%), 주민기록가 양성 3건(38%)으로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에서 생산·수집된 기록물은 디지털파일과 실물자료로 납품·관리되는 경우가 5건(63%)이며,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김포시, 대덕구, 연천군 3건(38%)이었다. 결과물의 활용은 보고서·매거진·스토리텔링 북 등 출판물 발간 5건(63%),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4건(50%), 자료실·전시실 등 공간 운영 3건(38%)으로 이루어졌다.

〈표 4〉 지자체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 현황

연년	지자체	기간	예산 (백만원)	수집				관리			활용		
				조사수집	경관촬영	구술	주민기록가	관리주체	파일/실물	관리시스템	출판물	공간운영	DA
1	김포시	2016~	80	○	○	○	-	문화재단	-	○	-	-	○
2	양산시	2017~	70	○	-	-	-	사업부서	○	-	-	○	-
3	성남시	2020~	285	○	○	○	○	사업부서	○	-	○	-	-
4	순천시	2020~	61	○	-	-	-	사업부서	○	-	-	○	-
5	평택시	2020~	58	○	-	-	-	사업부서	○	-	○	-	-
6	의정부시	2021~	188	○	-	-	○	문화원	○	-	○	○	○
7	대덕구	2021~	23	○	○	○	○	문화원	-	○	○	-	○
8	연천군	2021~	248	○	○	-	-	사업부서	-	○	○	-	○

(출처: ① 예산서: 대덕구 2021-2023, 성남시 2020-2023, 순천시 2020-2023, 양산시립박물관 2017-2023, 연천군 2021-2023, 의정부시 2021-2023, 평택시 2020-2023 ②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연천군 2021-2023, 평택시 2020, 성남시 2022-2023, 김포문화재단 2018, ③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별 구축된 웹사이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은 지자체와 지방문화원 또는 문화재단의 협력 체제로 추진되는 경우가 전체 중 3건(38%)이었다. 김포시, 의정부시, 대덕구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아래 문화재단(김포문화재단) 또는 지방문화원(의정부문화원, 대덕문화원)이 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생산·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도 담당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문화원의 사업 범위에는 지역문화(향토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 사업 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유지·관리가 포함된다(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 제8조의2). 김포시(문화예술과)의 예산 지원 아래 김포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김포 역사문화 관련 기록물 목록 구축 및 디지털화, 근현대 역사문화 구술채록을 진행하였고 2018년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김포 역사문화 디지털아카이브’)을 구축하였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과)의 예산 지원 아래 의정부문화원이 기록물 수집공모 및 시민 기록 활동을 전개하였고 의정부시민아카이브센터 전시실 및 ‘의정부 기억저장소’ 웹서비스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대덕구(문화관광체육과)의 예산 지원 아래 대덕문화원이 주민기록가 양성, 신탄진동·대청댐 지역 자료 수집 및 지역민 구술채록 등을 실시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대덕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덕문화원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하여 대청댐 수물지역 구술 아카이빙을 실시하였다.

양산시립박물관은 2017년 박물관 내에 양산지역 역사·고고·미술사 관련 보고서 등 2천여 권의 학술자료를 보존·열람하는 역사자료실(아카이브실)을 조성하였으며(최병길, 2017.9.19.) 이후 현재까지 자료실 운영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성남시는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며 2019년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음 해부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였다. 성남시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민속 등에 대한 기록물 및 실물자료 수집, 지역민 구술채록, 건축물 및 공간 촬영, 시민활동가 조사 등 활동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디지털 파일은 휴대용 저장매체로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2023년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순천시에는 주로 시 및 시민 생활상을 담은 사진, 문서, 소품류 등 시정·향토자료의 수집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삼산도서관 내 시정자료 전시관을 마련하였다(하태민, 2020.6.29.). 이와 같이 양산시, 성남시, 순천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은 박물관 또는 자료실, 전시실 등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있었다.

의정부시와 연천군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의정부시는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2021년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하였고, 2022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12.6.). 의정부시는 기록물 수집공모 및 시민 기록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집한 근현대 생활사 자료를 보존·공유하기 위해 의정부시민아카이브센터를 개관하였다. 또한 ‘의정부 기억저장소’라는 사이트를 구축하였으나 수집자료에 대한 검색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발행물과 웹매거진이 제공되고 있다. 연천군은 2021년 조례 제정과 함께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연천군, 2021.6.8.)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민속·인물·사건 등에 대한 간행물, 사진, 유물 등을 수집하였다. 2021년에는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연천군 문화도시 기억보관소’)을 구축하였다(연천군, 2021.9.9.). ‘문화도시’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이자 지역문화진흥 정책으로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받으며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과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2021)은 사업 유형 중 하나로 지역 가치의 재발견·재조명 및 활용하기 위한 도시문화 아카이브를 제안하였다.

3.3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지역 기록화 사업 38건을 살펴보면 주관기관은 지자체 도시재생과(주거재생과, 생활공간재생과, 건설도시과, 재생협력과 등) 27건, 역사문화재과(역사관광과, 문화예술과 등) 5건, 도시재생지원센터 2건, 공사 및 재단이 4건이었다. 사업기간은 최소 1개월(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에서 38개월(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록화 용역)까지이었다. 사업비는 국비(국토교통부)와 지방비가 투입되었으며 최소 25백만원(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최고 320백만원(청계천일대 도심제조업 기록화 사업, 30개월), 평균 122백만원이었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의 수집 활동은 대상지의 역사문화·공간·건축·생활사 등 조사 및 기록물 수집, 경관·건축물 실측조사, 주민 구술채록, 주민기록가 양성, 사업과정 및 전후 기록화로 나뉘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대상지의 역사문화, 자연환경, 공간·건축, 인물 등 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록물 수집이 33건(87%)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 주민 생애사 등 구술채록 활동이 21건(55%)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과 전후 기록화 활동이 19건(50%) 이루어졌다. 경관·건축물에 대한 실측이 12건(32%), 주민기록가 교육·양성은 7건(18%)이었다.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은 모두 사업 발주부서에 사진·영상·도면·목록·조사대장 파일 등 기초데이터로 납품되었으며, 이후 관리 주체나 관리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과업지시서 상 사업내용에 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실물자료의 물리적 보존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없었으며, 기록화 자료의 보존·관리 방안,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방안 제시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광주광역시 남구, 2019; 제천시, 2019; 포항시 2020a). 또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웹사이트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있고 각 지자체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도시재생포털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통해서도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이 관리·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생산·수집된 기록물의 활용 방법으로는 출판물이 36건(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고서, 자료집, 백서, 소식지, 아카이브북,

스토리텔링북 등 유형으로 발간되었다. 도시재생사업 과정의 기록화가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경과를 정리한 백서나 소식지를 발간한 것이다. 또한 사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다큐멘터리 영상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21건(55%),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8건(21%)이었다.

〈표 5〉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현황

연년	지역	기간	예산 (백만원)	수집					관리	활용		
				조사수집	경관촬영	구술	주민기록가	사업기록화	파일관리	출판물	전시회	영상콘텐츠
1	서울시 정비구역	2016	299	○	-	-	-	-	○	○	-	-
2	목포 원도심	2017	198	○	○	-	-	-	○	○	-	-
3	부천시 소사	2018	49	○	-	○	○	-	○	○	-	○
4	남양주시 금곡동	2018	31	○	-	○	-	-	○	○	○	-
5	전북 익산시	2018	200	○	○	-	-	-	○	○	-	-
6	서대문구 천연층현	2019	70	○	○	○	-	-	○	○	-	-
7	광주 양림동	2019	170	○	-	-	-	○	○	○	○	○
8	제천시 원도심	2019	150	○	-	○	○	○	○	○	-	-
9	정읍시	2019	93	○	○	-	-	-	○	○	-	-
10	부천시 삼곡본동	2020	49	○	-	-	○	○	○	○	-	-
11	경기도청 주변	2020	25	○	○	-	-	-	○	○	-	-
12	화성시 황계동	2020	88	○	-	○	-	○	○	○	-	-
13	대전시 가오동	2020	42	-	○	○	-	-	○	○	-	○
14	아산시 배방원도심	2020	50	○	-	-	○	-	○	○	-	○
15	포항시 중앙동	2020	100	○	-	-	-	○	○	○	-	-
16	포항항 구항	2020	260	○	○	○	-	○	○	○	○	○
17	진주시 성북지구	2020	118	○	○	○	○	○	○	○	-	○
18	나주시	2020	80	○	-	-	-	-	○	○	-	-
19	청계천 일대	2020	320	○	○	-	-	-	○	○	○	○
20	군포시 원도심	2021	150	○	-	○	○	○	○	○	-	-
21	광명시 광명3동	2021	160	-	○	○	-	○	○	○	-	○
22	화성시 송산	2021	176	○	-	-	○	○	○	○	-	○
23	동인천역	2021	176	○	-	○	-	○	○	○	○	-
24	세종시 조치원	2021	175	○	-	○	-	-	○	-	○	○
25	광주시 백운광장	2021	170	-	○	-	-	○	○	○	-	○
26	광주시 입동	2021	98	○	-	-	-	○	○	○	-	○
27	군산시 중앙동	2021	29	○	-	○	-	-	○	○	-	○
28	익산시 인화동	2021	50	○	-	○	-	-	○	○	○	○
29	익산시 송학	2021	50	-	-	-	-	○	○	-	-	○
30	여주시 한려지구	2021	50	○	-	○	-	-	○	○	○	○
31	부평구 굴포천	2022	70	○	-	○	-	-	○	○	-	○
32	대전역	2022	49	○	-	○	-	-	○	○	-	-
33	익산 신청사지역	2022	90	○	-	-	-	○	○	○	-	○
34	해남군	2022	169	○	-	○	-	○	○	○	-	○

35	구미시 선주원남동	2022	312	○	-	○	-	○	○	○	-	-
36	창원시 진해	2022	180	○	○	○	-	-	○	○	-	○
37	강원도 철원군	2022	45	-	-	○	-	○	○	○	-	-
38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2023	40	○	-	-	-	○	○	○	-	○

(출처: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도시재생사업 기록화를 실시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록화를 통해 일종의 ‘정성적’ 사업평가를 도모하는 경우이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기록화는 지역 내 건축·경관, 역사·문화, 인물 등 자원을 기록화하고 그 결과물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도시재생 펠릭 문화스토리텔링 사업(2020)의 경우 대상지에 대한 조사 및 기록화를 수행하여 마을해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서울시 청계천 일대 도심제조업 기록화 사업(2020)은 도시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도시의 공간, 변화하는 산업과 생활사에 대해 기록·보존하는 동시에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창원시 진해 근대도시 건축 아카이빙 구축 용역(2022)은 도시재생 대상지인 충무 활성화지구 전역의 근대 건축자산 조사 및 실측, 개인의 공간경험에 대한 구술기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성과지표 개발·측정)과 함께 사업 기록화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업 전후 지역, 주민 생활사 등 변화 모습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사업의 정성적 성과를 기록화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홍보하고 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2023)은 대상지의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측정과 함께 금마고도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수집하고 주민들의 일상사, 생활사 등 사회·문화적 변화 과정을 기록하였다. 해남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록화 및 모니터링 용역(2022)은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와 함께 재생사업 전후 대상지의 지역, 주민, 시대상 등 변화 과정을 기록하였다. 해남군의 사업은 대상지의 주민·지역공동체 현황, 사회·경제조직 및 활동, 마을공간 등 조사·분석, 지역자원 및 주민 소장자료 수집, 시민의 삶과 활동 공간 기록 등이 진행되었다. 수집된 기록물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백서 발간, 전시회 개최 등에 활용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록화 사업 분석 및 사업 지속성을 위한 제안

4.1 조례 제정에 근거한 사업 추진

도시경관 기록화는 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경관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9건 중 8건(89%)은 2007년 「경관법」 및 지자체별 경관 조례 제정 이후 수행되었고, 4건(44%)는 2차 사업까지 실시되었다. 「경관법」 및 경관 조례의 제정이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추진에 동력이 된 것이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는 2019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총 10건 제정되어 있다. 조례 제정을 전후로 8곳(80%)에서 관련 지역 기록화 사업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은 시작 이후 현재까지 모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며 진행 중이다. 평택시, 연천군, 대덕구는 조례 제정과 함께 당해 연도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성남시, 의정부시, 여수시는 조례 제정 이후 다음 해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양산시, 순천시는 각각 양산역사 자료실(아카이브실), 시정자료 전시관 개관 이후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를 아카이브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조례는 사업의 효과적인 시작점이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로 역할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모두 일회성 사업으로 끝났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 남기기’ 사업은 2013년 가이드라인의 수립, 2016년 정비사업 역사생활문화 유산 등 전수조사 사업이 이루어졌으나(서울시, 2016), 이후 단체장의 교체 및 정책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폐지되었다(허남설, 2021.9.20.).

법령에 의하지 않고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들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기도 한다(한상우, 2010). 지역 기록화 사업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분석과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조례 등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집행 기간 자체가 3~5년으로 한정된 사업이긴 하나, 산출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관리·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통해 결과물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활용 방안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된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중 2차 이상 사업이 수행된 비율은 각각 9건 중 4건(44%), 8건 모두(100%)이며, 결과물의 축적·활용을 위한 기반인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된 비율은 각각 6건(67%), 3건(38%)이었다. 반면 도시재생 기록화는 모두 일회성 사업으로 끝났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통해 결과물의 축적·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지역 기록화 사업 추진 시 조례의 제정 유무는 사업의 시행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부서의 지역 기록화 사업 현황 비교

구분	대상 수(건)	조례 유무	2차 이상 수행(건)	예산 (백만원)	수집(건)						관리(건)			활용(건)				
					기획 연구	조사 수집	경관 촬영	구출	주민 기록가	사업 기록화	분류 코드	파일 관리	관리 시스템	출판	전시	공간	영상 콘텐츠	DA
도시경관 기록화	9	0	4	207	9	7	9	-	-	-	9	3	6	9	3	-	-	6
도시역사 문화아카이브	8	0	8	127	-	8	4	3	3	-	-	5	3	5	-	3	-	4
도시재생 사업기록화	38	X	-	122	-	33	12	21	7	19	-	38	-	36	8	-	21	-

4.2 예산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사업성과 평가의 필요성

유형별 지역 기록화 사례의 사업 단위 또는 연 단위 평균 예산은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207백만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127백만원,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122백만원이었다. 사업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제도과 사회환경이 있다(서화열, 2022).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책사업 등은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정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한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는 국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는 국책사업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이 있었다.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2021)은 사업 유형 중 하나로 도시문화 아카이브를 제안하였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 사업으로 추진된 경우는 전체 중 2건으로, 의정부시와 연천군은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세부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연천군청, 2021c; 2022b; 2023b; 의정부시, 2021; 2022; 2023). 지자체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 8건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예산 편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도시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지역과 관련한 정책 이슈는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사업 성과이다. 사업을 완료한 후 결과나 성과는 차기 연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서화열, 2022). 지역 기록화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효과를 입증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자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예산 규모는 사업 단위, 연 단위로 모두 평균 1억 원 이상으로 사업마다 적지 않은 공공 재원이 투입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산출물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줌으로써 공적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 기록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계획 및 집행의 적절성과 전문성, 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는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지역 기록화 사업이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4.3 지역민 참여형 기록화 사업 활성화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사업에서 이루어진 기록 수집활동은 크게 사전 계획, 지역조사 및 기록물 수집, 경관실측 및 촬영, 지역민(생애사) 구술채록, 주민기록가 양성, 사업 기록화이었다. 지자체별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9건은 공통적으로 기획연구와 경관실측을 진행하였으며 구술채록이나 주민기록가 양성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시경관 기록화는 도시변천 자료를 생산하여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공간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은 도시역사문화를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8건 사업의 주요 활동은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사 자료에 대한 조사 및 공개 수집 8건, 경관촬영 4건, 구술채록 3건, 주민기록가 양성 3건이었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는 자료 조사 및 수집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는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거나 재생사업의 정성적 성과를 기록하고 홍보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조사대상 38건 사업의 주요 활동은 대상지 조사와 기록 수집 33건, 구술채록 21건, 사업 추진과정과 전후 기록화 19건, 경관촬영 12건, 주민기록가 교육·양성 7건이었다.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성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요소로 지역민의 참여를 꼽을 수 있다. 지역의 내부자인 개인이나 공동체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지역의 역사를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기록화의 성패는 지역민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다(설문원, 2012). 따라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진행 시 각 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공간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록대상을 선정할 때 경관계획, 도시계획 등 주요 시책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2019)의 경우 5차 사업부터 기록 대상에 시민 설문조사로 선정한 대표 장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도시경관 기록화에서 지역민의 참여를 확보한 사례이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나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와 같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갖는 기록화 사업은 주민기록가 양성 활동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주민기록가 활동은 지역민이 직접 기록을 생산·수집하는 가장 적극적인 참여의 방법이다. 주민기록가 양성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에서 3건(38%),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에서 7건(18%)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지역민 구술채록, 주민기록가 양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역민을 기록 활동의 주체로 양성하는 주민기록가 활동(18%)보다는 주민을 인터뷰이로 하여 구술채록(55%)하는 간접적 참여 활동이 더 많이 수행되었다.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기록가와 같은 직접적 참여 활동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사업의 지속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4.4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기록물 활용도 향상

지역 기록화 사업에서 생산·수집된 기록물의 관리는 사진·영상·텍스트 등 파일로 납품·관리되는 경우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로 구분된다.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6건(67%),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는 3건(38%)이었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의 결과물은 모두 파일로 납품·관리되었고

이후 관리주체나 관리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는 결과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업의 결과와 성과가 축적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전북 익산시의 경우 인화동, 송학, 신청사 지역, 금마고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익산시 행정지원과(기록관리계)에서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에서 축적된 유·무형 기록을 비롯하여 익산시가 수집한 민간기록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다(익산시, 2023.2.6.).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와 같이 사업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결과물의 관리·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지자체 기록물관리기관이 관리주체가 되어 수집·생산된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은 출판물 발간, 전시회 개최, 자료실·전시실 등 공간 운영, 홍보·다큐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로 활용되었다.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의 경우 6건(67%),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경우 4건(50%)이었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는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었다. 도시재생 관련 웹사이트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있고 각 지자체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도시재생포털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이 관리·제공되고 있지는 않았다.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지역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관리 및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외부의 열람·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 및 콘텐츠 서비스의 접속자 수, 기록물 사본 열람률, 이용률 등은 하나의 사업 성과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시·문화 관계부서에서 도시·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인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의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경관이 요구되면서 「경관법」, 경관조례의 제정과 함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각 자치단체의 도시·문화 관계부서에서 도시정책,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또는 도시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민의 문화적 삶을 위해 지역 기록화가 이루어졌다. 기록의 범위는 물리적 공간에서 지역민의 생애사까지 포함하며, 주민기록가 활동과 같이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기록하는 적극적인 참여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함께 지역 기록화 사업이 활발히 시작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이다. 조사한 사례 중에서는 20년 이상 지속된 사업도 있었지만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도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 두 축은 법령과 예산이다. 조사 결과, 조례의 제정은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이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로 역할하고 있었다. 「경관법」 및 경관조례 제정 이후의 제정 이후 지자체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 제정을 전후로 지자체에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모두 일회성 사업으로 끝났다.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와 같이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성 사업일지라도 관련 법령을 통해 산출된 기록물의 관리주체 및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 지역 기록화의 사업 단위 또는 연 단위 평균 예산은 122-207백만원으로 적지 않은 공공 재원이 투입되고 있었다. 공공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기록화

사업의 산출물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줌으로써 공적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 기록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향후 지역 기록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계획 및 집행의 적절성과 전문성, 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는 평가체계가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 지역 기록화 사업은 지역민의 참여가 본질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동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활용성에 한계가 있는 출판물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전시회 개최 등을 지양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생산·수집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성과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문화 관계부서에서 도시·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예산, 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역 기록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수행된 사업 전반을 조사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록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관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호.
 경관법. 법률 제15460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4725호.
 계기석, 천현숙 (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방안 연구. 안양: 國土研究院.
 계룡시 경관 조례. 조례 제795호.
 광명시 (2021).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기록화 용역 과업지시서.
 광주광역시 (2019).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광주광역시 남구 (2019). 양림동 도시재생 자료수집 및 마을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광주광역시 남구청 (2021). 백운광장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광주광역시 북구청 (2021).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구미시 (2022).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국토교통부 [발행년불명].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출처: <https://www.city.go.kr>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877호.
 국무조정실 (202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군산시 (2021).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과업지시서.
 군포시 (2021). 군포원도심(군포역, 금정역) 생활문화 아카이빙 1단계 용역 과업지시서.
 김지훈, 김익한 (2023).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1), 1-26.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1.001>
 김천시 경관 조례. 조례 제1448호.
 김포문화재단 (2018a). 2018년 김포 역사문화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김포문화재단 (2018b). 김포 역사문화 아카이브. 출처: <https://archive.gcf.or.kr/>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제1790호.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43>
 나주시 (2020).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 대구광역시 (2013). 예산서.
- 대구광역시 [발행년불명].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출처: https://www.daegu.go.kr/daeguview/index.do?menu_id=00935351
-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5445호.
- 대덕문화원 (2021). 대덕 아카이브. 출처: <https://www.daedeokarchive.co.kr>
- 대전광역시 (2021).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 대전광역시 (2022).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록화 용역 과업지시서.
- 대전광역시 [발행년불명]. 대전 도시경관사진아카이브. 출처: <https://www.daejeon.go.kr/urb/ContentsHtmlView.do?menuSeq=1346>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 예산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2). 예산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3). 예산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제1560호.
- 대전광역시 동구 (2020). 가오 새터말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과업지시서.
-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5886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8.).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9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942호.
- 목포시 (2017). 목포 근대건축자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2.12.6.).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문화로 도시발전 전환점 마련.
- 부천시 (2018). 소사 문화 아카이빙 용역 과업지시서.
- 부천시 (2020). 2020년 펄벅 문화스토리텔링 아카이빙 용역 과업지시서.
- 서울연구원 (2016).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출처: <https://data.si.re.kr/photo>
- 서대문구 (2019).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 서울특별시 (2014). 서울경관 기록화 사업(5차) 제안요청서.
- 서울특별시 (2016). 정비사업 역사생활문화 유산 등 전수조사 과업지시서.
- 서울특별시 (2019). 서울경관 기록화 사업(6차) 용역 과업내용서.
- 서울특별시 (2020). 청계천 일대 도심제조업 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내용서.
-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조례 제7782호.
- 서화열 (2022). 기록전문직의 기록관리 사업예산 확보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설문원 (2021). 기록학의 지평. 서울: 조은글터.
- 설문원, 김정현 (2013). 공간 중심의 연계형 기록화의 실행 방안 : 부산지역 동해남부선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36, 233-269.
<https://doi.org/10.20923/kjas.2013.36.233>
- 성남시 (2020). 예산서
- 성남시 (2021). 예산서
- 성남시 (2022a). 예산서
- 성남시 (2022b). 2022년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 성남시 (2023a). 예산서.
- 성남시 (2023b).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제3285호.
- 세종특별자치시 (2021).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2023호.
- 손원태 (2016).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2020).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순천시 (2020). 예산서.

순천시 (2021). 예산서.

순천시 (2022). 예산서.

순천시 (2023). 예산서.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제2093호.

아산시 (2020). 아산시 배방 도시재생 자료수집 및 기록화사업 제안요청서.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제1556호.

양산시 시립박물관 (2017). 예산서

양산시 시립박물관 (2018). 예산서

양산시 시립박물관 (2019). 예산서

양산시 시립박물관 (2020). 예산서

양산시 시립박물관 (2021). 예산서

양산시 시립박물관 (2022). 예산서

양산시 시립박물관 (2023). 예산서.

엄소영, 김혜영, 명현, 김용 (2017). 민간 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 대구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179-205.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179>

엄수용 (2020). 도시기록 아카이브 설립방안 연구: 성남시의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여수시 (2021). 여수시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제1501호.

여진원, 장우권 (2016). 도시기록화 사례 연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387-416. <https://doi.org/10.16981/kliss.47.2.201606.387>

연천군 (2021a). 연천군 도시문화 아카이브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연천군 (2021b). 연천군 문화도시 기억보관소. 출처: <https://www.yeoncheon.go.kr/archive/main.do>

연천군 (2021c). 예산서.

연천군 (2022a). 연천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북 출판 및 아카이브 용역 과업지시서.

연천군 (2022b). 예산서.

연천군 (2023a). 연천군 기증자료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연천군 (2023b). 예산서.

연천군 보도자료 (2021.6.8.). 제1차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개최.

연천군 보도자료 (2021.9.9.). 연천군 문화도시 아카이브 구축 시동.

오진영 (2016). 도시재생기반 도시기록화 사례 연구 -목포 목원동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울산광역시 [발행년불명].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출처: <https://www.ulsan.go.kr/archive/index.jsp>

유해연, 양지원 (2021). 주민참여형 기록화사업을 위한 마을기록단 교육프로그램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7), 97-106. <https://doi.org/10.5659/JAIK.2021.37.7.97>

유혜림 (2018). 지역기록화를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의정부문화원 [발행년불명]. 의정부 기억저장소. 출처: <http://52.79.191.84>

의정부시 (2021). 예산서.

의정부시 (2022). 예산서.

의정부시 (2023). 예산서.

-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제3009호.
- 이경래 (20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51-82.
<https://doi.org/10.20923/kjas.2015.45.051>
- 이정연 (2021). 주민 주도 기록화 실천의 성과와 의미: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3, 95-137.
<https://data.doi.or.kr/10.23035/KAICS.2021.1.13.095>
- 이정은, 김유경, 김건 (2020).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연구. 기록학연구, 64, 119-155.
<https://doi.org/10.20923/kjas.2020.64.119>
- 이희숙 (2019).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 모형 설계와 적용.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익산시 (2018). 익산 근대화유산 실측조사 및 DB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 익산시 (2021a). 익산 송학(KTX역 서편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기록화 용역 과업지시서.
- 익산시 (2021b). 인화동 근현대 생활문화사 아카이브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 익산시 (2022). 익산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용역 과업지시서.
- 익산시 (2023).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용역 과업지시서.
- 익산시 보도자료 (2023.2.6.). 익산시, 도내 최초 온라인 민간기록 수장고 '본격화'.
- 인천광역시 (2018).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인천광역시 (2021). 동인천역 주변 역사문화자산 발굴 및 아카이빙사업 1단계 용역 과업지시서.
- 인천광역시 [발행년불명]. 인천도시경관아카이브. 출처: <https://imap.incheon.go.kr/archive/main.do>
-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조례 제5954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 도시재생뉴딜 기록화사업 용역 과업설명서.
- 임세진 (2020). 폐광지역의 아카이빙과 도시재생을 위한 활용 : 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장순재 (2007).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월간 국토, 313, 126-130.
-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346호.
- 전주시 (2015).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용역 제안요청서.
- 정읍시 (2019). 정읍시 역사문화 미래유산 발굴 및 DB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29호.
- 제천시 (2019).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록화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17417호.
- 진주시 (2020).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평가분석 및 영상기록 아카이빙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 창원시 (2022). 진해 근대도시 건축 아카이빙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 철원군 (2022). 샘나는 마을·도시재생 뉴딜사업기록화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 최병길 (2017.9.19.). 양산시립박물관 역사자료실 '희청헌' 26일 개관.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70919152800052>
- 최윤진 (2011).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5393호.
- 평창군 (2020). 평창군 도시경관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과업이행요청서.
- 평창군 [발행년불명]. 평창군 도시경관 기록시스템. 출처: <https://cityview.pc.go.kr>
- 평택시 (2020a). 예산서.
- 평택시 (2020b).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수집 용역 과업지시서.
- 평택시 (2021). 예산서.
- 평택시 (2022). 예산서.
- 평택시 (2023). 예산서.
- 포항시 (2020a).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관리 및 기록화 용역 과업지시서.

- 포항시 (2020b).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관리 및 기록자산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 하승용 (2019).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체계 및 기록방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하태민 (2020.6.29). 순천 100년 변천사 한눈에 시정자료관 개관. 한국일보.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91410000056>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지역 생활문화 기록화사업 용역 과업내용서.
- 한상우 (2010). 정책의 법제화. 법제, 626, 5-42.
- 해남군 (2022). 해남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록화 및 모니터링 용역 과업지시서.
- 허남설 (2021.9.20.). 서울에서 사라지는 박원순의 2014년 유산. 경향신문. 출처: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9200944001>
- 화성도시공사 (2020). 화성시 황계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록화 사업 용역 제안요청서.
- 화성도시공사 (2021).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백년이야기(기록화) 사업 과업지시서.
- 화순군 (2021) 화순군 경관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 Cox, R. J.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1). Documenting localities :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 Scarecrow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san City (2020). Task Description on Baebang Urban Regeneration Data Collection and Documentation Project.
- Bucheon City (2018). Task Description on Sosa Culture Archiving.
- Bucheon City (2020). Task Description on Pearl S. Buck Cultural Storytelling Archiving Project.
- Changwon City (2022). Task Description on Archiving of Modern Urban Architecture.
- Cheorwon county (2022). Task Description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Documentation of Envable Village Urban Regeneration Project.
- Choe, Byun-gil (2017.9.19.). Yangshan City Museum's Historical Archives 'Hee Cheongheon' opens on the 26th. Yonhap News. Available: <https://www.yna.co.kr/view/AKR20170919152800052>
- Choe, Yoon-Jin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Sungmisan Communit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Chungcheongnam-do Government Ordinance o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No.5393.
- Daedeok Culture Center (2021). Daedeok Archive. Available: <https://www.daedeokarchive.co.kr>
- Daedeok-gu (2021). Budget Bill.
- Daedeok-gu (2022). Budget Bill.
- Daedeok-gu (2023). Budget Bill.
- Daedeok-gu Government Ordinance to establish and operate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No.1560.
- Daegu Metropolitan City (2013). Budget Bill.
- Daegu Metropolitan City [n.d.]. Daegu City Landscape Archives. Available:
https://www.daegu.go.kr/daeguview/index.do?menu_id=00935351
-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Collection of Private records. No.5445.
- Daejeon Dong-gu (2020). Task Description on Gao Saeteomal Urban Regeneration Documentation Project.
- Daejeon Metropolitan City (2021). Task Description on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 Daejeon Metropolitan City (2022). Task Description on Documentation of Daejeon Station Urban

- Regeneration Project.
- Daejeon Metropolitan City [n.d.]. Daejeon City Landscape Archives. Available:
<https://www.daejeon.go.kr/urb/ContentsHtmlView.do?menuSeq=1346>
- Daejeon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No.5886.
- Gimcheon City Government Ordinance on Landscape. No.1448.
- Gimpo City Government Ordinance to establish and operate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No.1790.
- Gimpo Cultural Foundation (2018a). RFP for Establishemnt of Gimpo City History and Culture Digital Archive System.
- Gimpo Cultural Foundation (2018b). Gimpo City History and Culture Archive. Available:
<https://archive.gcf.or.kr:28443/archive/ArchiveMain.do>
- Gumi City (2022). Task Description on Documentation of Seonju Wonnam-do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 Gunpo City (2021). Task Description on 1st Life-Culture Archiving of Original Downtown.
- Gunsan City (2021). Task Description on Jebo Dockside Storytelling and Virtual Restoration project.
- Gwangju Buk-gu (2021). Task Description on Documentation of Imdo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 Gwangju Metropolitan City (2019). Task Description on Gwangju City Landscape Documentation an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 Gwangju Nam-gu (2019). Task Description on Urban Regeneration Data Collection and Village Archives Project in Yangnim-dong.
- Gwangju Nam-gu (2021). Task Description on Documentation of Baegun Plaza Urban Regeneration Project.
- Gwangmyeong City (2021). Task Description on Documentation of Gwangmyeong 3-dong Urban Revitalization Project.
- Gye, Gi-seok & Chun, Hyeon-Sook (2001). Strategies to Establish City Identity in an Era of Decentralization. Anya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Gyeongsangnam-do Government Ordinance o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No.4725.
- Gyeryong City Government Ordinance on Landscape. No.795.
- Ha, Seung-Yong (2019). A Study on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Systems and Documentation Methods.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Ha, Tae-min (2020.6.29). Suncheon's 100-year history of change at a glance at the Municipal Archives. Hankookilbo. Available: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91410000056>
- Haenam county (2022). Task Description on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 Han, Sang-Woo (2010). Policy and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on, 626, 5-42.
- Heo, Nam-seol (2021.9.20.). Park Won-soon's 2014 legacy fades in Seoul. The Kyunghyang Shinmun. Available: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9200944001>
- Hwaseong Urban Corporation (2020). RFP for Hwanggye-dong Urban Revitalization Area Documentation Project.
- Hwaseong Urban Corporation (2021). Task Description on Songs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100 year Story(documentation) Project.
- Hwasun County (2021). Task Description on Landscape Documentation.
- Iksan City (2018). Task Description on Modern Cultural Heritage Research and DB Establishment.
- Iksan City (2021a). Task Description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Documentation of Iksan Songhak Urban Regeneration Project.
- Iksan City (2021b). Task Description on Modern and Contemporary Life-Culture Archiving of Inhwa-dong.

- Iksan City (2022). Task Description on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of Iksan New Government Office Area Urban Regeneration Project.
- Iksan City (2023). Task Description on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of Geummagodo Area Urban Regeneration Project.
- Iksan City Press Releases (2023.2.6.). Iksan City, the province's first online private record archives 'in full swing'
- Incheon Bupyeong-gu (2022). Task Description on Docu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 Incheon Metropolitan City (2018). Planning Report on Urban Landscape Photography Documentation an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in Incheon.
- Incheon Metropolitan City (2021). Task Description on 1st Project for Discovery and Archiving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Around Incheon Station.
- Incheon Metropolitan City [n.d.]. Incheon City Landscape Archives. Available:
<https://imap.incheon.go.kr/archive/main.do>
- Incheon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Landscape. No.5954.
- Jang, Sun-Jae (2007). Basic direction and main contents of the Landscape Act. Human Settlements, 313, 126-130.
- Jecheon City (2019). Task Description on Original Downtown Documentation Project.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 Ordinance o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No.1729.
- Jeollanam-do Government Ordinance o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No.5346.
- Jeongeup City (2019). Task Description on Historical and Cultural Future Heritage Discovery and DB Establishment.
- Jeonju city (2015). RFP for Jeonju City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 Jinju City (2020). Performance Management and Video Archiving of Seongbuk District Urban Regeneration Project.
- Kim, Hwa-Kyoung (2012).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of Busan Sanbokdoro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43-1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43>
- Kim, Ji-hun & Kim, Ik-han (2023)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1), 1-26.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1.001>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2018). Task Description on Life-Culture Archiving of Namyangju Geumgok-dong Urban Regeneration Area Life-Culture Documentation Project.
- Landscape Act. Act No.15460.
-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ce No.2018-926.
- Lee, Hui-Suk (2019). Design and application of local cultural resource archiving model :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eongbuk-gu.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 Lee, Jung Yeon (2021). The Achievements and Meanings of Resident-led Archiving Practice: Focusing on Jeungpyeong Archiving Projec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3, 95-137. <https://data.doi.or.kr/10.23035/KAICS.2021.1.13.095>
- Lee, Jung-eun, Kim, You-Kyung & Kim, Geon (2020). A Study on the Status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Private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4, 119-155.

- <https://doi.org/10.20923/kjas.2020.64.119>
- Lee, Kyong Rae (2015). The Politics and Governance of 'Maeul' Community Archive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5, 51-82. <https://doi.org/10.20923/kjas.2015.45.051>
- Lim, Se-Jin (2020). Archiving of abandoned mine area and practical use for urban regeneration : Abandoned mine area in Gangwon-do provi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ss Releases (2022.12.6.). Six cities have been designated as the 4th Cultural Cities Aiming to establish a turning point for city growth.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d.].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Available: <https://www.city.go.kr>
- Mokpo City (2017). Task Description on Establishment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Archive System and Content Development.
- Naju City (2020). Task Description on Planning for Revitalization of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21).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asks Performance over the past four years.
- Oh, Jin-young (2016). A Case Study on the Documentation of Urban based on Urban Regeneration : Focused on the Mokpo Mokwondo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ohang City (2020a). Task Description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Documentation of Jungang-do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 Pohang City (2020b). Task Description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Documentation of Pohang Old Port. Promotion Of Local Cultural Centers Act. Act No.17417.
- Pyeongchang county (2020). Task Description on Landscape Documentation an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 Pyeongchang county [n.d.]. Pyeongchang City Cityscapes Records. Available: <https://cityview.pc.go.kr>
- Pyeongtaek City (2020a). Budget Bill.
- Pyeongtaek City (2020b). Task Description on Planning of USFK Historical Archive and Collection Research Project.
- Pyeongtaek City (2021). Budget Bill.
- Pyeongtaek City (2022). Budget Bill.
- Pyeongtaek City (2023). Budget Bill.
- Sejong Self-governing City Ordinance o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No.2023.
-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2021). Task Description on Documentation of Youth Jochiwon Project.
- Seodaemun-gu (2019). Task Description on Life-Culture Archiving of Chunghyeon Area.
-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3-44.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Seol, Moon-Won (2021). *Horizon of Archival Science*. Seoul: Joeungeulter.
- Seol, Moon-won & Kim, Jeong-hyeon (2013). Implementing Sp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for Donghae-Nambu Railway Area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233-269. <https://doi.org/10.20923/kjas.2013.36.233>
- Seongnam City (2020). Budget Bill.
- Seongnam City (2021). Budget Bill.
- Seongnam City (2022a). Budget Bill.
- Seongnam City (2022b). Task Description on Seongnam City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Project.

- Seongnam City (2023a). Budget Bill.
- Seongnam City (2023b). Task Description on Seongnam City History and Culture Archives System Development Project.
- Seongnam City Government Ordinance to establish and operate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No.3285.
- Seoul Institute (2016). The Seoul Research Data Service. Available: <https://data.si.re.kr/photo>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RFP for 5th Seoul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6). Task Description on Investigation Project of Historical and Life-Cultural Heritage in Redevelopment Area.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9). Task Description on 6th Seoul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0). Task Description on Documentation Project For Downtown Manufacturing in Cheonggyecheon Area.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Landscape. No.7782.
- Son, Won-tae (2016). A Study on the Urban Archiving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Identity - Focused on Old Downtown in Daejeon C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 South Korea Policy Briefing (2022.12.8.). Promoting the creation of 'Korea Culture City' "Developing regional balance through culture". Availabl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90>
-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ct No.18877.
-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Act No.18942.
- Suh, Hwayul (2022). A Study on the Strategy of Securing the Archival Budget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Suncheon City (2020).Budget Bill.
- Suncheon City (2021).Budget Bill.
- Suncheon City (2022).Budget Bill.
- Suncheon City (2023).Budget Bill.
- Suncheon City Government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municipal records and the setablichment of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No.2093.
- Suwon Sustainable City Foundation (2020). Task Description on Urban Regeneration Documentation Project around Gyeonggi Provincial Office.
- Uijeongbu City (2021). Budget Bill.
- Uijeongbu City (2022). Budget Bill.
- Uijeongbu City (2023). Budget Bill.
- Uijeongbu City Government Ordinance to establish and operate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No.3009.
- Uijeongbu Culture Center [n.d.]. Uijeongbu Memory Archives. Available:<http://52.79.191.84>
- Ulsan Metropolitan City [n.d.]. Ulsan City Landscape Archives. Available: <https://www.ulsan.go.kr/archive/index.jsp>
- Um, So-Young, Kim, Hye-Young, Myung, Hyun & Kim, Yong (2017). A Study on Development of Acquisition Policy for Establishing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 Focused on Daegu Yakjeon Alley.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179-205.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179>

- Um, Su-yong (2020). City record archive establishment method research : based on Seongnam city development proc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 Yongsan City Government Ordinance to establish and operate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No.1556.
- Yongsan City Museum (2017). Budget Bill.
- Yongsan City Museum (2018). Budget Bill.
- Yongsan City Museum (2019). Budget Bill.
- Yongsan City Museum (2020). Budget Bill.
- Yongsan City Museum (2021). Budget Bill.
- Yongsan City Museum (2022). Budget Bill.
- Yongsan City Museum (2023). Budget Bill.
- Yeo, Jin-Won & Chang, Woo-Kwon (2015). A Case Study on the Urban Documentation: Centers on the modern missionary of Yanggrim-dong area in Nam-gu, Gwangju.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387-416. <https://doi.org/10.16981/kliss.47.2.201606.387>
- Yeoncheon-Gun (2021a). RFP for Yeoncheon-gun Urban Culture Archive Project.
- Yeoncheon-Gun (2021b). Yeoncheon-Gun Cultural City Memory Archives. Available: <https://www.yeoncheon.go.kr/archive/main.do>
- Yeoncheon-Gun (2021c). Budget Bill.
- Yeoncheon-Gun (2022a). Task Description on Cultural heritage Storytelling Book Publication and Archive Project.
- Yeoncheon-Gun (2022b). Budget Bill.
- Yeoncheon-Gun (2023a). RFP for Donations Digitization and Archive System Advancement Project.
- Yeoncheon-Gun (2023b). Budget Bill.
- Yeoncheon-Gun Press Releases (2021.6.8.). Held the 1st Yeoncheon County Cultural City Promotion Committee.
- Yeoncheon-Gun Press Releases (2021.9.9.). Started establishing the Yeoncheon Culture City archives.
- Yeosu City (2021). Task Description on Urban Regeneration Documentation Project of Hanryeo District.
- Yeosu City Government Ordinance to establish and operate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No.1501.
- Yoo, Hae-Yeon & Yang, Ji-Won (2021).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Village Documenting Group for Residents' Participatory Recordings Projec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7(7), 97-106. <https://doi.org/10.5659/JAIK.2021.37.7.97>
- Yu, Hye-Rim (2018). A study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rchives for regional documentation : case of Kangwon archives cooperat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